



불의 발명

고시내

“불을 누가 처음 발명했을까?”

요즘의 운동동(정신문화연구원 자리) 골짜기는 신록으로 가득 차 있다. 하루 종일 연구실에만 틀어 박혀 있다. 점심 시간에 산책하는 것이 일과의 하나요, 그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다. 산책 길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

“누가 불을 발명했을까요?”

“高矢乃라는 분이지요”

“그 분이 누구데요?”

대답해도 믿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재차 다그쳐 묻는다.

“우리나라의 오랜 전설 속에 고시내란 분이 계셨는데 神市시대였다고 합니다.”

“신시 시대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단군 이전의 桓雄시대를 신시시대라고 하지요”

단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세상인데 단군 보다 이전의 역사를 말하니 알 턱도 없거니와 믿으려 들지도 않



을 것이 뻔하다.

“고려 시대에 李 淸平(본명은 李 苑)이라는 분이 震域遺記란 책을 썼습니다. 一然이 三國遺事를 지을 무렵이었지요. 거기에 보면 고시내가 불을 발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역유기」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처음 환웅 천황이 天府三印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 오셨는데 바로 태백산檀木 아래였다. 태백산이란 백두산을 두고 한 말인데 짐승이 우굴거리고 수목이 무성하여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3천명의 무리 가운데 고시내씨를 불러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보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고시내씨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시 나라의 농림부장관이 되었는데 그가 처음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과 또 곡식을 걷어 들이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나 불이 없어 날로 먹어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

단군 건국이전 神市시대 고시내란 사람이
호랑이를 향해 던진 돌이 바위에 맞아
번쩍하고 불이나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와
돌과 돌을 맞부딪쳐 불을 최초로
발명하였다 한다.

갔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걸고 있는 이런 골짜기 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들 귀담아 듣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때는 늦은 가을이라 잎은 떨어져서
나무 줄기와 가지만 앙상하게 서 있었고 큰 나
무들이 서로 엇갈려 뻗뻗히 들어서 있었다.

고시내씨가 한참 서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일진광풍이 불더니 나무가 서로 흔들
리고 바람 소리가 요란하였다. 고목들의 줄기
와 가지가 서로 얼키고 부딪치더니 불이 번쩍
번쩍 일어났다가 꺼지고 다시 불이 번쩍 하다가
꺼지고 했다.

이것을 본 고시내씨는

“옳지 옳지 이것이야말로 불을 일으키는 좋은
방법이로구나”

하고 소리 질렀다. 급히 집으로 돌아온 고시내
씨는 늙은 괴목 가지를 꺾어다가 서로 맞비벼
보았다. 그러나 불은 커녕 연기도 나지 않았다.

실망한 고시내씨는 이튿날 다시 숲속으로
가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머리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불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호
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 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사람들 같으면 겁이 나서 기절하거나
도망하기에 바쁘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고시내씨는 돌을 집어서 호랑이를 향
해 힘껏 던졌다. 그러나 호랑이는 어찌나 몸이
날랜지 그만 돌맹이를 피해서 달아나고 말았



다.

그런데 그 때 고시내씨가 던진 돌은 바위에
맞아 번쩍하고 불을 일으켰다. 고시내씨는 기뻐
서 집에 돌아와 돌과 돌을 맞부딪쳐 보았다.
과연 불이 났다.

다른 사람들이 필자의 이상과 같은 이야기
를 듣고 나더니

“그럴듯한 이야기네요”

하면서 웃었다.

“아니 이 이야기는 내가 꾸며 낸 것이 아니
라 揆園史話라는 역사서기에 나오는 실화
입니다.”

시치미를 떼고 실화라고 했으나 물론 실화
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생판 거짓말은 아
닌 것이다.

66

고시내가 발명한 불을
단군의 둘째 아들 부소가
이를 개량하여 쇠와 돌, 쭉을 이용한
부식돌을 개발했다.

99

고시내의 노력과 머리로 사람들은 그뒤 날
것을 먹지 않고 모두 익혀서 火食하게 되었
고 쇠붙이를 달구어 연장을 만드는 기술까지
터득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 이야기라고 할까
아뭏든 단군 전국 이전이니까 5, 6천년 전의
일이었다고 할수 있다.

부 소

경제사학자나 역사가들은 불의 발명을 인류
가 경험한 최초의 산업혁명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단군 이전에 불을 발명했다
고 한다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제1차
산업혁명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마침 中共에 큰 산불이 나서 20일이 넘도
록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화제
에 올라 고시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불이야!”하고 밤에 고향을 지르면 이웃이
나와 보지만 “도적이야!” 소리 지르면 겁이 나
서 나오지 않는다 하여 다들 도적이 들면 “불
이야!” 소리질러야 하는 것으로들 믿고 있다.
그만큼 불은 무섭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불도 없으면 담배한
대 못태우고 밥 한끼 먹기 힘들다. 불의 매력
이라 할 수 있다.

단군 조선 때 들어와서도 夫蔬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부소는 단군의 둘째 아들



인데 부식돌을 발명하였다는 인물이다.

부소는 고시내가 이미 발명한 방법을 개량
하여 마른 쭉을 재료로 삼고 쇠와 돌을 쳐서
불을 붙이는 새 방법을 개발하였다. 근세에 와
서 우리는 성냥을 쓰게 되었으나 성냥이 들어
오기 전에는 모두들 부식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부식돌은 쇠와 돌 그리고 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쇠는 부소쇠, 돌은 부소돌, 쭉은 부소깃
(羽)이라고 했었다. 이유는 부소가 이것을 발
명하였다 하여 그 공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부식돌은 구시대의 유물이요
사용하기 불편한 연장이지만 옛날에는 이처럼
편리한 取火器가 없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에게는 담배 싹지와 부싷물은 필수품이었고 휴대하기 간편한 도구였다.

우리 민족이 특히 불과 친근했던 사실은 扶余라는 나라 이름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부여는 불에서 나온 말이라 하며 벌(平野)이란 말도 역시 불에 연유한 말이라 한다. 옛날에 수목이 울창한 벌판에다 불을 놓아 태워 버린 뒤 기름진 농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란 말이 곧 벌이란 말로 전용 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북방민족이다. 추운지대에 정착해서 겨울에는 혹한에 대비하여야만 살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지퍼놓은 불을 꺼뜨리지 않게 잘 간수하여야만 했다. 지금 연세가 50이 넘고 시골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분들

은 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어른들이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르는 소리를 기억할 것이다.

일본이 자랑하는 富士山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死火山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연기를 내어 뿜는 활화산이었다. 우리 한라산도 고려시대에 갑자기 산꼭대기에 구멍이 뚫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는 아직 활화산이었던 것 같다. 백두산도 훨씬 이전 어느 때까지는 활화산이었으리라. 그런데 일본의 부사산의 옛 이름이 夫妻山이다. 부루란 단군의 맏아들 이름이다.

왜 일본에 우리 단군의 맏아들 이름이 남아 있는가? 그것도 그들의 主山에 그런 한국 이름이 붙여져 있었을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선조가 일본을 정복하고 개간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전설에 따르면 부루, 부소, 부의라는 세 신이 3박 3일을 꼬박 일을 해서 부사산을 쌓아 올렸다는 것이다. 이 전설을 남긴 사람이 한국인인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우리 역사속에 불의 이야기는 불의 발명부터 시작된다. 어찌 보면 불의 발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고시내와 부소에 얽힌 전설은 곧 우리 역사의 시작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박 성 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부교수
- 한국사학회 이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 (現)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인문연구실장